

■ 대입 면접 준비 전략



대입의 전형요소 다양화와 함께 면접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질문의 요지를 파악한 뒤 논점을 흐리지 않게 대답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사진은 최근 있었던 조선대 수시 2-1 모집 최종면접 장면. (광주일보 자료사진)

사회 이슈 틈틈이 정리하면 고득점

이번 주를 끝으로 광주·전남 주요 대학의 수시2학기 원서접수가 거의 마무리된다. 수시2-1 전형의 경우 최종면접을 마친 곳도 많다. 대입 전형 요소가 다양화하면서 면접의 중요성도 조금씩 커지고 있지만, 면접을 따로 대비하는 학생은 드물다.

광주·전남 지방대의 경우 대부분 논술고사를 치르고 있지 않지만 면접의 반영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광주여대처럼 수시2에서의 면접 반영률이 20%를 넘는 대학도 나오고 있다.

면접은 실제 반영률이 낮은 수준이라 해도 '대충' 임했을 때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전문가들은 논술이나 심층면접, 수능 등 다른 전형 요소에 비하면 준비도 그리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면접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면접 유형은?

대학마다 차이는 있지만 면접을 통해 대학은 응시생의 가치관, 인성, 수학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는 ▲학생의 소양, 상식, 인성을 평가하는 방식 ▲항후 대학에서 공부할 전공에 대한 기초지식 및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 ▲자기소개서나 학업계획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잠재적인 가능성을 평가하는 방식 등으로 나뉜다.

질문 요지 정확히 파악→ 명료한 답변→ 부연 설명

용모·태도 큰 변수... 자연계 수학이 당락 좌우

대교협 사이트 등 대학별 유형 참고해 두면 도움

엘림에듀 이정선 평가연구원은 "면접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된 수험생이라면 걱정이 많을 시점이다. 그러나 면접을 충실히 준비해온 학생은 생각보다 드물다.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인다면 면접관에게 충분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www.kcu.or.kr) 등 입시관련 전문 사이트에 제시된 대학별 면접 유형을 참고하는 것도 좋다고 덧붙였다.

◇무엇을 어떻게

자신이 지망하는 전공이나 계열과 관련한 지식은 필수다. 지원 대학에 대한 정보도 챙긴다면 금상첨화다. 가지관단을 요구하는 질문에 대비하기 위해 빈출 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리하고,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현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것이 좋다. 시사문제는 면접에서 질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직접적으로 질문하지 않더라도 답변할 때 예를 들어 설명하기에 좋기 때문이다. 엇비슷한 수준의 수험생 사이에서는 용모나 태도가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질의 응답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지나치게 긴장한 나머지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증언 부연하는 것, 조금만 마음에 질문이 끝나기 전에 답하는 것은 금물이다.

질문을 이해했다면 가급적 결론부터 간단 명료하게 언급하고 부연설명을 곁들여야 한다. 부연설명도 되도록 쉬운 단어로 필요한 말만 하고 끝내는 것이 좋다. 말이 길어지면 눈치가 흐트러지기 쉽다.

최악의 경우, 입도 벋긋할 수 없는 질문이 던져질 수도 있다. 그렇다고 인상을 꾸기거나 어중잡게 아는 척하지는 말자. 이미 받아 놓은 점수까지 깎일 수 있다. 이럴 때는 자신의 무지를 순순히 인정하되,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감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유웨이중앙교육 이만기 평가사는 "자연계 면접고사시 수학이 당락을 좌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결과보다는 풀이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성의껏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을 제시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이러면 수능 부정행위!

무심결에 휴대폰 갖고 가면 성적 무효

교육과학기술부는 11월 13일 처리지는 2009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을 앞두고 15일 부정행위 유형과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 휴대가능물품 등을 정리해 발표했다.

◇부정행위 적발 1위는 "휴대전화기 소지"=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물품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거나 시험시간 중 지니지 말아야 할 물품을 소지한 경우 및 시험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탐구영역 응시때 시간별로 정해진 선택과목을 응시하지 않으면 부정행위자로 처리된다.

실제 지난해 수능에서는 65명의 부정행위자가 적발돼 모두 성적이 무효로 처리됐다. 유형별로 보면 휴대전화기 소지 36명, MP3 소지 5명, 전자사전 등 전자기기 소지 7명 등으로 금지물품을 무심결에 갖고 있다가 적발된 경우가 많았다.

또한 4교시 선택과목을 치를 때 시간별로 정해진 선택과목을 응시하지 않고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이상의 문제를 보다가 적발된 사례도 지난해 15명이나 된다. 시험 종료후 이후 답안을 작성하다 적발된 2명도 부정행위로 처리됐다.

◇시험장 반입금지-휴대 가능 물품은= 시험장에 갖고 들어올 수 없는 물품으로는 휴대전화기가 첫 손 꼽히는 금지 품목이다.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렌,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오디오플레이어, 시각표시 외의 기능 이 부착된 시계 등 일체의 전자기기도 절대 갖고 들어오면 안된다.

시험시간에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

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0.5mm), 시각표시기능만 있는 시계 등이다. 연필,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의 개인필기구(샤프펜 포함)는 개인이 가져올 수 없다.

샤프펜과 컴퓨터용 사인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적으로 나눠주며,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당 5개씩 지급돼 감독관에게 요청해 사용할 수 있다.

◇제재조치=부정행위 가운데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준 자 ▲다른 수험생과 손잡고, 소리 등으로 신호한 자 ▲부정 휴대물을 보거나 무심결에 들고 나온 자 ▲대리 시험 의뢰 또는 대리 시험 응시자 ▲답을 보여달라고 강요하거나 위협한 자 등은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추가로 1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연합뉴스

■ 수능 시험장 휴대 불가 물품



광주 콜센터 메카의 힘은 '광주여대'

광주에 입주한 대기업 콜센터가 지역 일자리 창출의 효과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관련 학과까지 신설해 전문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는 광주여대의 뒷받침이 있어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광주여대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개설된 콜마케팅학과는 올해 2월 최초로 8명의 조기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이들을 전원이 광주에 위치한 삼성전자 자서비스 콜센터 등 관련 기관에 취업시키는데 성공했다.

신입생 30여명 중 30%를 넘는 20명이 졸업예정자 신분인 올 10월 현재 각 콜센터의 중간관리자급으로 취재 각 콜센터의 중간관리자급으로 취업한 상태다. 이들은 콜센터의 팀장이나 교육감사, 슈퍼바이저 등으로 활동 중이다.

2004년 콜마케팅학과 신설 관리자 등 전문 인력 양성 지역 일자리 창출 효력으로

최근에는 광주시가 삼우지구에 1천500석 규모의 콜센터 전용건물을 짓기로 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광주여상과 송원여상에 콜마케팅과 신설돼 내년부터 신입생 모집에 들어가는 것도 큰 힘이 되고 있다.

광주여대 콜마케팅학과 정성일 학과장은 "광주여상과 송원여상 콜마케팅과 졸업생 중 대학 교육을 지속적으로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광주여대에 우선 입학할 수 있는 전형을 협

약을 통해 마련했다"며 "다양화된 사회에서 콜센터 인력도 전문화가 돼야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광주여대는 콜센터 취업을 위한 일반인 교육도 꾸준히 제공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노동부 등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900여명의 콜센터 인력을 배출했다. 4주 교육을 받은 이들 중 40% 이상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광주시청 경제정책과 정남인 계장은 "광주에 콜센터 붐 조성을 한 데 있어 광주여대의 역할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일반 근로자 외에 중간관리자급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해서도 독보적"이라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A large advertisement for '영화안내' (Movie Guide) featuring various cinema listings. It includes sections for '메가박스' (Megabox), '엔터 시네마' (Enter Cinema), '콜롬버스 시네마' (Columbus Cinema), '씨너스 전대' (Cinears), '하미 시네마' (Hami Cinema), and '제일 시네마' (Jeil Cinema). Each section lists movie titles, showtimes, and prices. The ad also features movie posters for '이글아이', '미스홍당무', '모던보이', '하우투루즈프렌즈', and '사과'.